

2021년 12월 2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52편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84(통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출애굽기 15장 22~26절(구약p.105)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말씀선포 /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본문은 홍해를 건넌 후 수르광야로 들어서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대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서 홍해로부터 사흘 길쯤 떨어진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한 2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지 못한 채 이곳 마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길에서 그들은 물이 없어 심한 갈증에 시달려야만 했고, 마침내 마라에서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르”의 여성형으로 그 뜻은 “쓴, 괴로운, 고통”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는

1.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심입니다.

- 본문 2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고 하심은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본문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라고 하시며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한 나무” 는 바로 하나님 사랑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2장 4-5절에서 “금흠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 했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확증이 바로 “한 나무” 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된 치료자가 되십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라와 같은 괴롭고, 슬픈, 고통의 쓴물을 만날 때 한 가지가 되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일 년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았으며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2022년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는

2.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으며, 지금 마라의 현장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심으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능하신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부르짖는 확신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 본문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원망할 때, 25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와이초악 엘 아도나이” 로 되어 있는데 여기 부르짖는다는 “와이초악” 은 원형이 “차아크” 로서 이는 “소리를 지르는 것, 날카롭게 부르짖는 것” 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심한 고통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기도가 절실하였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곧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홍해 앞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고 외쳤던 것이고, 지금 마라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고 하였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요한1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사람 모세 앞에 애굽의 왕 바로도, 홍해도, 당시 마라의 쓴물도 이를 감당치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2022년은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나의 자리에 서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둘째, 순종과 헌신입니다.

- 모세는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절대 순종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의 치료 곧 “여호와 라파” 는 반드시 말씀에 의지한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고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고 이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 곧 연단하셨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 오늘, 치료하시는 여호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환된 역사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확신의 기도와 순종과 헌신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 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죽음과 저주의 쓴물을 생명과 축복과 천국의 단물로 만들어 준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코로나19로 여전히 변함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저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마라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했고, 질병과 경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등 수많은 각가지의 마라를 만나 고통과 괴로움과 실망과 좌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또 다시 일어나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였고, 우리의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율한해를 마무리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는 “여호와 라파” 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여 크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01(통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폐 회 / 주기도문